

서약을 새롭게 하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면 지체하지 말고 갚으라 이는 너희에게 죄가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신명기 23:21

수 세대에 걸쳐 새해의 시작은 종종 새로운 목표를 세우겠다는 결심과 연관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을 개선할 약속을 생각하기에 적절한 때입니다.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의 백성들 중 많은 이들도 새 생명으로 전념한 삶에 대해 엄숙히 성찰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로서 더 높은 성장을 이루기 위해 재헌신하고, 재집중하며, 노력할 것이며, 주님께 드린 헌신과 희생과 봉사의 서약을 죽음까지도 더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힘쓸 것이다.

달력의 새 페이지를 넘기는 이 시기는 막을 내리는 한 해 동안 사랑의 하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풍성한 선하심과 자비, 축복을 되돌아보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때입니다. 우리는 큰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를 되새깁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래 전 약속하신 왕국이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가 점점 더 분명해짐에 따라, 더욱 확고한 확신과 희망으로 앞을 내다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로마서 13:11). 우리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와 그분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시간과 재능, 기회를 새로운 방식으로 활용하기를 고대합니다. 또한 우리는 가난하고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인류 가족에게 생명과 평화의 축복을 가져오고, 그리스도의 다가올 평화 왕국 통치 아래 순종하는 모든 이에게 화해를 제공하려는 그분의 궁극적인 계획과 놀라운 목적에 동참할 준비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서원하기

“서원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겠다고 엄숙히 약속하거나 맹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따르는 자가 서원할 때, 그것은 형제나 자매의 마음 상태를 반영하며 하늘 아버지께 전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삶을 나타냅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편 50:5; 베드로전서 2:5). 하나님께 서원할 때는 그 서약을 반드시 이행하고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온전한 마음의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서원의 중대성과 신실한 이행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할 때 지체하지 말고 이행하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분께 한 모든 약속을 지키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낫다." 전도서 5:4,5

살아있는 제물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을 가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사도 바울의 지혜로운 권고에 힘입어 활기를 얻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여 너희에게 권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1,2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삶을 제물로 드리라는 바울의 감동적인 권면은 오직 마음을 다해 주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에게만 해당됩니다. (로마서 5:8,9; 베드로전서 1:18,19). 이들은 현재 이 기쁘게 받으시는 희생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대제사장들이 자신들을 하나님께 드렸듯이,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다른 대제사장들과 달리, 그분은 매일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먼저 자기들의 죄를 위해, 그다음 백성의 죄를 위해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백성의 죄를 위한 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단번에 이를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으로 제한받는 대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주어진 후, 하나님은 맹세로 그의 아들을 세우셨고, 그의 아들은 영원토록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히브리서 7:27,28

사도는 하나님께 희생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특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이것은 믿을 만한 말씀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 것이요, 고난을 참으면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요,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신실하시니 이는 그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심이라." 디모데후서 2:11-13

최고의 우선순위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함을 말하며, 이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그분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귀하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것들을 통해 너희가 죄악된 욕망으로 인해 세상에 있는 부패함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사랑을, 형제 사랑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후서 1:4-7

사도는 이어서 덧붙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 굳게 하라. 이를 행하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너희에게 풍성히 마련될 것이라." 베드로후서 1:10,11

그리스도를 얻음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의 경험을 매우 개인적으로 기록했는데, 이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교훈이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줄로 여기노라.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노니 이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한 것이요 그를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헛된 것으로 여기노니 이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되려 함이라 율법에서 난 나의 의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얻으려 함이라. 이는 내가 그와 그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이 되어,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에 이르려 함이라." 빌립보서 3:7-11

사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지위를 얻기 위해 모든 개인적인 희망과 야망과 영광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다른 모든 관심사와 세상의 이득은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들은 하늘의 소망과 비교하면 하찮아지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신성한 은혜와 축복을 얻기 위해 사라집니다. 로마서 8:16,17

예수님의 비유 가르침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 서원한 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하는지에 관한 중요한 교훈을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천국은 한 사람이 먼 나라로 떠나기 전에 자기 종들을 불러 각기 능력에 따라 은을 맡긴 것과 같으니,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마태복음 25:14,15). 오순절 이후로 예수님의 전념한 제자들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 하나님께 책임과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것, 즉 시간과 영향력,

기회를 사용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충실함으로 나타냅니다. “기쁘게 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여집시다. 가진 것에 비례하여 내고, 없는 것에 비례하여 내지 마십시오 ” 고린도후서 8:12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어 말씀하셨다.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돈을 투자하여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다. 두 달란트를 받은 종도 가서 두 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에 구멍을 파서 주인의 돈을 숨겨 두었다." 마태복음 25:16-18

책임 있는 청지기는 하늘 아버지께 온전히 헌신된 자신의 재능을 사용할 수 있는 길과 장소를 찾고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와 인도 아래 거룩하게 된 지혜와 분별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우리의 의무는 재능을 최선으로 사용하여 가장 큰 유익을 얻고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올바른

판단을 보이지 않고 자신의 달란트를 세상의 욕망과 추구 속에 무심코 묻어버렸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이 부족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랜 후에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와 그들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르셨다. 다섯 달란트를 맡은 종이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말하였다. '주인님, 저에게 다섯 달란트를 투자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다섯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은 그를 칭찬하며 말하였다.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네게 더 큰 책임을 맡기리라. 와서 네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이 나아와 말하였다. '주인님, 주인님께서 저에게 두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제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주인이 말하였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실하였으니, 이제

네게 더 큰 책임을 맡기리라. 와서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라!" 마태복음 25:19-23

비유에서 주님께서 나중에 종들에게서 보고를 받으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속에서 부여받은 재능과 능력, 기회를 얼마나 충실히 사용했는지에 대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각 사람이 심판을 받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베드로전서 4:17). 이에 대해 바울은 덧붙여 말했습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 있든지 죽었든지 그분께 인정받기 위함이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할 것이니, 각 사람이 자기 몸 안에서 행한 것, 곧 선한 것이든지 악한 것이든지 그 행한 대로 그에 따라 보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9,10

이득을 내지 못한 종

비유를 이어서 읽으면,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나아와 말하되, 주인님, 저는 당신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모으는 엄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여 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 두었습니다. 여기, 당신의 것을 받으십시오!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되, 너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겨 두었어야지. 내가 돌아왔을 때 원금에 이자를 더하여 받았을 것이다.” 마태복음 25:24-27

한 달란트를 받은 무익한 종은 다음 구절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주인이 말하기를, 그에게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 넘치게 하리라. 그러나 아무것도 얻지 못한 자에게서 그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마태복음 25:28,29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와 특권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는 자들은 그 특권을 빼앗길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특권은 자신의 재능과 기회를 유익하게 사용하며 충실했던 다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사탄의 도전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완전한 헌신의 궁극적인 본보기이십니다. 그는 요한 세례자에게 요단 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 그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하늘 아버지께서 사탄이 육신과 세상과 원수의 유혹으로 그분을 시험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사십 일 밤낮을 금식하시니 심히 주리셨더라." 마태복음 4:1,2

예수님은 사탄의 첫 번째 제안,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돌들을 떡으로

만들라고 명령할 수 있다는 말에 도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마태복음 4:3,4; 신명기 8:3).

두 번째 시도로 사탄은 시편 91:11,12- 을 인용하며,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는 듯한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사탄이 속임수로 인용한 말씀의 의미를 올바르게 제한하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지니라." 마태복음 4:5-7; 신명기 6:16

사탄이 예수님께 한 세 번째 유혹은 그분을 정신적으로 아주 높은 산으로 데려가 세상 모든 나라를 내려다보게 한 것이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서 엎드려 자신에게 경배하면 그 모든 나라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시 이렇게 대답하셨다. “기록되었으되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4:8-10; 신명기 6:13,14

후에 사도 바울은 사탄을 이 악한 세상의 신으로 규정했다.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려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후서 4:4).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은 자신이 왕국을 가지실 것임을 인정하셨으나, 그것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빌라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왕국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니...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36).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의 통치 를 사탄과 나누는 것은 그분에게 죄가 되었을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를 아신 주님은 사탄의 제안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과 그분의 강력한 능력 안에서 강해지십시오. 사탄의 계략에 맞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10-12). 사도는 형제들이 우리 주님의 능력에 대한 더 큰 믿음과 확신, 신뢰를 갖도록 격려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악한 날에 적에게 맞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싸움 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하나님의 의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발에는 복음의 평화를 신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완전히 준비될 것이다.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라.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잡으라.” 에베소서 6:13-17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는 불화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으로 잘 보호받고 저항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면, 비록 우리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그리스도인의 갑옷을 벗어 던진 부분이 없는지 항상 주시하겠지만, 공격을 멈출 것이다. 야고보서 4:7; 베드로전서 5:8,9

이 혼란한 세상을 마주하며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는 지금 열방을 사로잡고 있는 두려움과 불확실성을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많은 소위 서구 국가들 안에서 정부와 국민의 시각이 거의 모든 국내 및 세계적 문제에 대해 갈수록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사회적

불안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다른 전선에서는 인공지능(AI)이 전 세계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과 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한 파괴적 활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 시장과 일자리의 점진적 약화 역시 많은 사람들과 가정에 큰 걱정거리입니다. AI가 더욱 널리 사용됨에 따라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으로 인해 이러한 우려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무대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최종적인 평화적 해결책에 대한 합의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최근 휴전 및 일부 다른 조항에 합의했지만, 이스라엘과 중동 전반의 상황은 여전히 잠재적 분쟁, 공격, 그리고 전면전 재개 가능성의 화약고 상태입니다. 여기에 더해 많은 국가에서 반유대주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이 직면한 수많은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사람들과 국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 조직들은 여전히 세계 각지에서
활동하며, 또 다른 공격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많은
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2026년을 맞이하는
지금,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혼란의 수많은 증거들 중
이러한 현상들은 분명히 바울의 말씀, "마지막 날에는
위험한 때가 올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1)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더욱 온전히 입어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겠다는 결의를 굳건히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디모데전서 6:12

매일 상기하는 것

많은 성경 연구자들은 "나의 아침 결심"(My Morning
Resolve)이라는 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일의 도움과 격려의
훌륭한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실히 하려고 힘쓰는 가운데, 이 글이 주는

놀라운 축복의 범위를 계속해서 기뻐합니다. 우리는 지금과 다가오는 새해 내내 주님께 우리의 서약을 새롭게 하는 책임과 특권을 상기시키기 위해 이 글을 여기에 포함합니다.

나의 아침 결심

내 첫 생각은 이러하리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에 내가 주께 무엇을 드리리이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은혜를 구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께 내 서원을 갚으리이다." 시편 116:12-14

"내게로 내 거룩한 자들을 모으라. 내게 제물로 언약을 맺은 자들아" (시편 50:5)라는 신성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나는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나의 서원을 이루고, 육체와 그 욕망을 희생하는 일을 계속하여 나의 구속주와 함께 하늘의 상속권을 얻으리라 결심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단순하고 진실되게 노력할 것이다.

자신을 기쁘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려 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합니다.

입술로 주님을 공경하여 내 말이 모든 이에게 기름지고 복되게 하리라.

주님과 진리, 형제들,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모든 이에게 큰 일뿐 아니라 삶의 작은 일들에서도 신실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이익이 나의 최고의 복을 위해 신성한 돌보심과 섭리에 의해 다스려짐을 믿으며, 나는 마음의 순결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불안, 모든 불만, 모든 낙담을 물리치려 노력할 것이다.

주님의 섭리가 허락하시는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리니,

“믿음은 무슨 일이 닥쳐도 그분을 굳게 신뢰할 수 있나니.”